

THE CHURCH IN TORONTO

열 두 광주리 가득히 아침부흥 제 21 주

안식은 능력이다

2008년 6월 23일 ~ 7월 5일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268, 571, -, 984, - (영 341, 789, 1104; 1131, 661)

성경: 누가복음 10:38-42; 이사야 30:15; 빌립보서 4:6-7; 마태복음 11:29

📖 누가복음 10:38-42

38.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1.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이사야 30:15

15.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अन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어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 빌립보서 4:6-7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마태복음 11:29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제 21 주 : 안식은 능력이다

☞ ☞ ☞ ☞ ☞ 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누가복음 10:41下-42

41. ...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임

어느날 우리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하는 한 자매가 그분을 가지 집으로 영접했다. 이 자매는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녀는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일들을 잘해 드려야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일 저일을 하고 이것 저것을 예비했다. 그녀는 매우 많은 일을 했고, 그녀의 마음은 안절부절이었다. 그녀의 마음이 안절부절했을 뿐 아니라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녀의 마음은 번거로움을 면하지 못했다. 그녀도 역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무라게 되었다. 그녀는 주 앞에 가서 주님께 말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 주님은 필요한 것이 오직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마르다는 많은 일을 했지만 주님은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저기에서 한 가지를 계획하고 여기에서 한 가지를 계획하고, 저기에서 한 가지를 하고 여기에서 한 가지를 하여 일을 매우 많이 한 것 같고 계획도 매우 많이 세웠지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 필요한 한 가지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가 선택한 그리스도이다. 이 필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마리아가 한 대로 평안하고 안온하게 주님 앞에 있음으로 얻는다! 우리 각 그리스도인은 모두 마땅히 일을 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을 하기 원하지 않는 자는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살후 3:10).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열심히 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할 때 안에 안식이 없고 우리의 주님까지도 잊어버리는 것 같다. 하루종일 바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기도도 제대로 못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 우리는 동분서주하고, 영적인 많은 일을 하고, 이 형제를 돕기 원하고 저 자매를 돕기 원한다. 우리의 동기는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지만 다 하고 나면 우리의 안은 마음의 염려로 어지러워진다.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많은 일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마음의 피를 풀어놓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한다! 이 한 가지는 주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주님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다.

☞ ☞ ☞ ☞ ☞ **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빌립보서 4:6上**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

📖 **마태복음 6:34**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우리 모두는 가장 좋은 분깃을 취할 수 있음 - 주님과의 교통**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안하고 안온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자. 그분은 결코 일하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루의 반은 세상 일을 하고 하루의 반은 영적인 일에 전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는 결코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를 일깨워, 부디 이러한 일이 그녀 안에 들어가서 그녀를 근심으로 번거롭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주 예수님은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주 예수님은 그녀가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너무 많은 염려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일은 하루종일 계속할 수 있지만 근심으로 번거로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밖의 일은 결코 바쁘지 않은데 안이 매우 바쁘다. 어떤 사람은 닷새 후에 할 일을 미리 닷새 전부터 허둥대고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근심한다. 다음날 한 시간만 들여서 사람을 만나

보면 될 것을 잠 자기 전에 네 시간 동안 생각해 버린다. 이러한 것은 너무 많이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너무 많이 생각한 것이다. 주님은 결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주님음 당신이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근심으로 번거로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형제 자매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열심히 일해야 하고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밖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밖으로 바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안으로는 안정되어야 하고 안에는 오직 하나-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주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이다.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는,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우리가 그 환경에 의하여 만진 바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몸은 바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안에는 오직 한 가지만이 있어야 하고 조금도 마음의 띠를 늦추서는 안 된다. 밖으로는 매우 바쁠 수 있지만 안에는 계속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자. 여기에는 마르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분복(分福)인 하나님과의 교통을 선택한 것이다. 주님은 마르다로 하여금 안의 안식에 있어서 마리아를 본받게 하신 것이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생을 본받게 하신 것이 아니다. 밖으로는 원함에 따라 마르다가 되어도 좋지만, 안으로는 부디 마르다가 되지 말라. 밖으로는 원함에 따라 마르다가 될 수 있지만, 안으로는 마리아를 본받아야 하고 완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야 한다. 밖은 매우 바쁘더라도 안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안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가장 귀한 체험이다.

만약 우리가 로렌스 형제처럼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게 될지도 모르지만 로렌스 형제는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밖의 일로 인해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아! 그는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안 분이다. 밖으로는 계속 바빴지만 안에는 계속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다. 밖에는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았지만 조금도 외면적인 일에 의한 번거로움이 없었다.

이것은 가장 축복되 생활 방식이다. 우리 각 사람이 모두 이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은 우리의 몸이나 느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깊은 곳에서 계속 주님과 교통하고, 계속 주님 앞에서 생활하고, 계속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태만하여 일을 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후에 우리로

능히 밖의 바쁨을 참을 수 있게 하신다. 당신이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얼마나 바쁘든지간에 결코 당신 안의 평강을 잃게 할 사람은 없고 당신 안에 있는 안식을 빼앗을 일은 없다. 바쁜 것은 밖의 일이고 안은 안정된 것이다. 형제 자매여, 당신은 결코 밖의 일이 당신을 만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밖의 일이 당신을 만지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 밖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간에 당신은 결코 그것이 당신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 안에는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당신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와와의 친근함만이 있어야 한다. 만약 다른 것이 당신 안에 들어온다면 당신 안의 평강은 없어질 것이다.

☞ ☞ ☞ ☞ ☞ **수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고린도전서 3:16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 데살로니가전서 5:16-18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구약의 성막은 안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뉜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금촛대와 금향단이 있다. 안마당에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다. 지성소와 성소 중간은 휘장으로 간막이가 되어 있다. 성소와 안마당 사이에는 포장이 있다. 안마당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도 포장이 있다. 안마당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혼자 들어갔었다.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려 주신다(고전 3:16).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성막의 상황과 같다. 안마당에서는 참으로 바쁘다. 이스라엘 사람이 수십만이었으므로 그들의 제사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른다. 또한 얼마나 많은 레위인이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소나 양을 잡았는지 모르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

여서 이러한 일들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마당 안에는 하루 종일 모두 사람이 있어도 되었지만 지성소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안 마당의 포장은 매번 당겨질 수 있었고 들어가는 사람이 매우 많아도 되었지만 지성소의 휘장은 여전히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한 사람도 들어 갈 수 없었다. 안마당 안은 소리로 가득찰 수 있었지만 지성소 안에는 소리가 없이 매우 조용했다. 안마당 안에는 바쁜 일로 충만할 수 있었지만 지성소 안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었고 매우 조용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밖으로는 수백 수천 사람과 접촉할 수 있지만 당신 자신은 가장 안정되고 조금도 요동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밖으로는 매우 바쁠 수 있지만 영 안에서 여전히 주님과 교통하고, 조금도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는 기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 분이나 반 시간 기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할 때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밖으로는 바쁘게 일하지만 안에는 여전히 주님과 교통이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일정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이 있어야 하지만 일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도 안의 생명은 여전히 계속 주님과 교통해야 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활 능력은 완전히 우리의 가장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 가장 깊은 곳은 밖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밖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는다. 당신 안은 안정된 것이므로 밖의 일들은 모두 당신 안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지성소 안에는 금춧대나 향단이나 진설병이 없지만 지성소는 성막 안의 모든 동작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성소 안에서 안정된 생활을 한다면 밖의 일이 당신을 만질 수 없게 되고 환경이 당신을 만질 수 없게 된다. 만약 당신이 지성소 안에서 생활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침투되심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당신과 하나님은 호흡이 상통하여 밖의 어떤 일도 그것을 중단시킬 수 없다.

☪ ☪ ☪ ☪ ☪ 목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마태복음 8:23-26

- 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좇았더니
-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 25. 그 제자들이 나와야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 마태복음 17:20

20.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주님은 결코 외적인 것들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분의 내적 존재에 따라 사셨음

형제 자매여, 우리의 생활 중에서 실패하는 것은 밖에서 바빠지면 안에서도 어지러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밖은 아직 바빠지지 않았는데 안이 벌써 바빠져 버린다. 안이 바빠졌기 때문에 밖의 일을 대처할 능력을 잃게 된다. 안식은 우리 생활의 능력이요, 평안과 안온은 우리 생활의 역량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어늘』 이라고 하셨다. 쉽게 자극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얻을 수 없고 근심으로 번거로와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능력이 우리 안의 평안과 안온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회오리 바람에는 중심이 있다. 밖의 회오리 바람은 매우 빨리 회전하지만 그 중심점은 매우 평정한 것이다. 중심이 안전된 이러한 생활이 바로 우리의 역량이다. 밖의 일은 강풍이 사납게 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안은 가장 안정되어야 한다.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어늘』 이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밖의 일이 많아질 때 곧 생각이 어지러워지고 안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하다면 당신은 당신의 환경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 바다를 보라. 바다의 표면은 얼마나 변동이 심한지 모른다. 파도가 매우 높이 치고 바람이 매우 세게 불어도 바다의 깊은 곳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매우 평정하다. 어떤 사람이 바다 아래의 생물을 특별히 연구했는데, 이러한 생물로 인해 바다 아래가 얼마나 많은 해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안에 평정과 안온이 있는 생활이다. 우리는 일이 바빠지지 않기를 바랄 수 없다. 우리는 도리어 일이 매우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의 안은 여전히 매우 안정되기를 바래야 한다. 일은 더 많아지더라도 우리의 안은 평정되고 안온해야 한다. 우리가 얻어야 하는 평안은 내적 평안이다. 만약 당신이 안이 평안하다면 당신은 실패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당신은

주님 앞에 살아야 하고, 마치 일이 없는 것 같아야 한다. 당신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하여금 안식의 생활을 보시게 해야 한다.

우리의 주님은 지금까지 밖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 어느날 회당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핍박하여 그분을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 했다.

만약 우리였다면 즉시 도망갔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주 예수님이 그들 사이로 곧바로 지나가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을 해치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조금도 개의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 사이를 지나가신 것이다(눅 4:28-30). 배에서 풍랑이 매우 사나왔을 때 우리의 주님은 잠을 자고 계셨다. 제자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구원하소서!』 라고 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는가? 그들 안에 안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소란 피울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마 8:23-27).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주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분은 도리어 나와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고 했다. 주님은 『내노라.』 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사람을 잡으려는 사람이 도리어 붙잡힐 사람에 의해 놀라 엎드려진 것이다(요 18:2-6). 아, 영원히 찬양드릴 주님! 그분은 시종일관 밖의 것에 의해 요동되지 않으셨고 오직 안에 의지하여 생활하셨다.

☞ ☞ ☞ ☞ ☞ **금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빌립보서 4:6-7**

-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 7.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마태복음 11:29-30**

-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두 가진 조건들이 내적 평강을 위하여 필수적임**

우리는 어떻게 안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아래의 두 곳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조건을 말한다.

첫번째 조건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것이다. 첫째로, 당신으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당신의 일, 당신의 필요, 당신이 당한 곤란 등을 당신은 모두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주님께 『주여!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당신의 손 안에 맡깁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이러한 모든 것을 만날 때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당신이 할 것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당신의 필요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당신은 일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맡겨야 한다. 당신이 맡기자마자 하나님의 평강이 즉시 당신의 생각을 지키게 된다. 당신이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밖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많은 일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안에서 계속 당신의 마음을 지키게 된다.

또한 두번째 조건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이다. 첫번째 조건은 믿음이고, 두번째 조건은 순종이다. 하나님이 많은 일을 당신에게 임하게 하실 때,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얻도록 하시는 바를 거절하거나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뜻에 들지 않거나 당신에게 만약 또 다른 요구가 있다면 당신 안에는 안식이 없게 된다. 안식은 바치고 드리는 데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당신에게 임할 때, 당신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다면 비록 당신이 당신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없고 고통을 느낄지라도 반드시 안식이 있다. 당신이 주님에게, 『주여! 당신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나는 모두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안식을 얻게 된다. 만약 당신이 하려고 하지 않거나, 자신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생활을 선택하려 하거나, 자기의 희망이 있다면 당신은 안식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의 불만과 욕망을 모두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잃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에게, 『주여, 당신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당신의 뜻을 원하고 나의 소망을 여기에 두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안식이 당신의 마음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무거운 짐과 어려

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믿게 하시기 바란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모든 뜻을 기꺼이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능히, 『나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란다. 참된 안식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를 원한다. 아직도 믿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안식이 올 수 없다. 자신이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할 때에도 안식은 올 수 없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밖의 어떤 일도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당신의 마음이 계속 주님과 교통한다면 당신으로 하여금 능히 밖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안식이 곧 능력임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갈망한다.

☞ ☞ ☞ ☞ ☞ **토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이사야서 30:15**

15.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

📖 **마가복음 9:24**

24. 곧 그 아나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 **마가복음 16:14**

14. 그 후에 열 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 **추구 자료** ◆

(주) 인용된 글은 워치만 니의 『열두 광주리 가득히』 제3권 10장 『안식은 능력이다』 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강조를 위하여 굵은 글자나 밑줄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제 3 부: GTA 권속 교통

1. 기도의 부담

1. 곧 있을 청소년들을 위한 MountainTop(6/26~29)과 기타 활동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토론토 지역에서 참가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처음으로 MountainTop에 참가할 예정인 청소년들과 그 친구들이 다수 있습니다.

3. 소식 및 안내

기타 안내

a. 주일 메시지 비디오 시청: www.churchintoronto.org에서 주일 나는 메시지의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집회 시간 및 집회소 안내】

Lord's Table	All Halls	Sunday, 10:00 AM	Sheppard Hall	671 Sheppard Ave. E., Toronto, ON M2K 1B6 (416) 221-7610
Young People	Sheppard	Saturday, 7:30 PM	Cecil Hall	24 Cecil St., Toronto, ON M5T 1N2 (416) 977-5588
College	Cecil	Friday, 7:30 PM	Greina Hall	7 Greina Ave., Toronto, ON M4A 2H5 (416) 757-7117
Grade 6	Greina	Saturday, 7:00 PM	자매집회	매주 목요일 오전11:00 (한터어 자매집회)
Prayer Meeting	Sheppard/Greina	Tuesday, 7:30 PM	소그룹	매주 수요일 오전11:00시(한터어가정소그룹)
	Cecil	Tuesday, 7:00 PM	소그룹2	매주 목요일 저녁6:00 (한터어가정소그룹2)
Web Page	www.churchintoronto.org		Web Page2	www.thechurchintoronto.ca

(이 아침부흥지는 영어 아침 부흥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및 한글 아침 부흥지는 www.thechurchintoronto.ca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